

이슈

2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3181호

방탄소년단 제이홉 솔로곡도 세계 강타

치킨 누들 수프, 빌보드 ‘핫100’ 81위
닭날개춤 인기…뮤비 조회 7000만 회

그들의 흥행 파워만큼이나 솔로의 질주도 거침없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정호석)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로 세계를 휩쓸고 있다. 공식적인 그룹 활동 공백기 동안 개인의 역량 과시와 팬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공개한 노래는 8일자(한국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81위에 진입했다. 방탄소년단이 아닌 멤버의 솔로곡이 해당 차트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보드는 이날 “방탄소년단이 ‘핫100’ 차트 세력으로 입지를 공고히 한 가운데 그룹 개별 멤버들 역시 그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핫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노래를 집계하는 것으로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횟수, 음원 판매 실적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이 곡은 스트리밍 970만 건과 다운로드 1만1000건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발표한 영국 오픈셜 차트 ‘싱글차트 톱100’에서도 82위를 차지했다.

그들 내에서 ‘안무 팀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제이홉은 뛰어난 춤 실력으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춤을 처음 접할 무렵인 2006년 미국 래퍼 영비와 웨스턴의 동명 노래에서 후렴구를 인용해 만든 ‘치킨 누들 수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호프웰드’ 이후 두 번째 솔로곡이다.

우리말로 ‘닭 칼국수’라는 별명이 붙은 이 노래는 중독성이 강해 한번 들으면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다. 또 하나의 흥행 요소는 제이홉의 춤 실력으로 꼽힌다.

뮤직비디오 속 제이홉은 눈을 땀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고, 세계 각국의 팬들은 “어메이징!”이라고 말하며 그의 춤 솜씨에 감탄했다. 포인트 춤은 곡 제목에서 느껴지듯 닭이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 같은 동작과 개다리춤이 섞인 ‘닭날개 춤’이다.

제이홉의 춤을 조금이라도 따라하고 싶은 팬들은 ‘치킨 누들 수프 챌린지’(CNS Challenge)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이자 제이홉 못지않은 춤 솜씨를 가진 지민과 정국, 태형 등도 챌린지에 도전하자 폭발적인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덕분에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9일 오후 현재 7000만 회를 넘어섰다. 유튜브에서 공개된 후 일주일간 가장 많이 본 동영상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제이홉

벤투 감독, 스리랑카전 대승 전략은?

손의찬 삼각편대나, 히든카드 김신욱이나

〈손흥민·황의조·황희찬〉

유럽파 3총사 소속팀서 골 감각 절정
상대의 밀집수비 뚫어낼 전천후 카드
벤투 감독의 ‘김신욱 활용법’도 주목

통산 11회,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H조)을 다시 시작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대표팀은 10일 스리랑카와 경기도 화성에서 홈 2차전을 갖는다. 15일 평양에서 북한과 원정 3차전을 펼친다.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에서 2-0으로 승리한 한국은 이달 2연전을 싸늘이해 최대한 여유롭고 순탄한 여정을 이어간다는 의지다. 다음달 레바논 원정 4차전까지 잘 마무리하면 내년 6월까지의 홈경기가 많아 안정적으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다. 벤투 감독은 소집훈련을 시작한 7일 “공격적인 부분을 살려야 한다. 심플한 경기 운영과 정교한 움직임, 패스와 슛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이기는 축구’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전방 삼각편대

스리랑카와 북한은 단단한 뒷문구축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한국이 객관적인 전력상 조에서 가장 앞선 만큼 집중전제는 불가피하다. 상대의 ‘뉴 축구’를 이겨내야 한다.

다행히 대표팀은 화려한 공격진을 보유했다. ‘캡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필두로, 황의조(지동명 보르도), 황희찬(잘츠부르크)이 있다. 최근 경기력이 좋다. 토트넘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최악의 하향곡선을 그려왔으나 손흥민은 팀 내에서 유일하게 제 몫을 했다. 지난달에만 2골·2도움을 올려 EPL 9월의 선수 후보에 올랐다.

프랑스 1부 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의조도 시즌 2호 골을 터트리며 물오른 감



벤투 “약체 스리랑카…준중심 갖고 싸워라”

FIFA 202위 상대, 방심은 금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차이는 무려 165계단. 그러나 사령탑은 절대 방심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축구국가대표팀이 10일 스리랑카와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H조 2차전을 벌이는 가운데 파울루 벤투 감독(50·포르투갈)은 경기를 하루 앞둔

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상대가 약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준중심하는 마음을 갖고 경기를 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력상 한 수 아래와 치르는 홈경기다. 스리랑카의 FIFA 랭킹은 202위로 37위인 한국보다 165계단이 낮다. 벤투 호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지는 이유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우리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안고 경기를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들도 잘 아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경기일수록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승리만큼 중요한 다득점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벤투 감독은 “다득점을 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득점을 고려했다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더러 있다. 현재 목표는 오직 승리뿐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각을 뽐냈고, 황희찬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두 경기 2골·3도움을 포함해 올 시즌 7골·10도움을 기록 중이다.

승점 3을 위한 총력전에서 삼각편대가 빠질 수 없다. 벤투 감독은 스리톱을 기반으로 한 원 톱부터 투 톱까지 다양한 조합을 고민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시간이 부여될 것은 자명하다. 손흥민이 깊숙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흔들고, 황희찬이 공간을 파고들면 황의조의 마무리 능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아시아 폭격기

호출 명령을 기다리는 이는 또 있다. ‘장신(197.5cm) 골게터’ 김신욱(상하이 선화)이다. 아시아 무대에서 그만한 스트라이커는 찾기 어렵다. 심플한 공격에 그 이상의 카드도 없다.

김신욱의 강점이 오직 피지컬과 제공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온 몸이 무기다. 그런데 짧은 출전시간이 아쉽다. 후반 막판 투입이 이뤄지면 호흡이 채 트이기도 전에 종료 휘슬이 울린다. 투르크 원정에서도 그는 후반 37분에야 출전해 딱히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벤투 감독은 ‘김신욱 활용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신욱의 특징과 장점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하고, 본인도 팀 스타일에 맞춰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다. 벤투호 출범 이후 두 번째 소집에 임한 김신욱은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스텝 바이 스텝’ 축구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의 마음가짐이다. 스리랑카도, 북한도 모두 존중한다. 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스리랑카전 공식기자회견에 나선 그는 “방심하지 않겠다”며 굳은 의지를 전했다. 화성 | 뉴스

‘매의 눈’ 최지만 볼넷 3개, 벌랜더 강판 선봉장

84개 투구 중 최지만에 19개나 던져
렘파베이 2승 반격 11일 최종 5차전
다저스는 오늘 NLDS ‘최후의 승부’

렘파베이 레이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맞붙음은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3선승제)를 비탈 끝 송부로 몰아가는 데 성공했다. 휴스턴 선발 저스틴 벌랜더와 3차레나 폴카운트 접전을 펼친 끝에 모두 볼넷을 얻은 최지만(28)의 공도 적지 않았다.

렘파베이 최지만은 9일(한국시간) 홈구장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휴스턴과 ALDS 4차전에 3번타자 겸 1루수로 선발출장해 2타수 1안타 3볼넷 1득점으로 팀의

4-1 승리와 2연승에 기여했다. 전날 3차전에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첫 안타를 솔로홈런으로 장식한 기세를 살려나갔다. 2승2패로 균형을 이룬 두 팀의 5차전은 11일 오전 8시7분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펼쳐진다.

1차전 선발로 100개의 공을 뿌린 벌랜더는 3일 휴식 후 4차전 선발등판을 강행했다. 벌랜더의 투구수를 늘리는 것도 4차전 렘파베이 승리의 필수요건 중 하나였다. 평소 ‘매의 눈’으로 상대 투수들을 괴롭혀온 최지만이 앞장섰다.

최지만은 2번타자 토미 펴의 좌중월 1점포로 1-0 리드를 잡은 1회 1사 후 첫 타석부터 벌랜더가 6개의 공을 던지게 했다. 1회 추가 2득점의 발판이 됐다. 3-0으로 앞선 2회 2사 1루 2번째 타석에서도 벌랜더에게

7개의 공을 던지게 만들었다.

선두타자 윌리 아다메스의 중월 솔로포로 4-0까지 달아난 4회 2사 후 3번째 타석에서도 0B-2S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침착히 볼 4개를 잇달아 골라 결국 벌랜더를 강판시켰다. 이날 3.2이닝 7안타 2홈런 3볼넷 5삼진 4실점으로 무너진 벌랜더의 총 투구수 84개 중 19개가 최지만의 몫이었다.

6회 무사 1루 4번째 타석을 헛스윙 삼진으로 마친 최지만은 8회 2사 후 5번째 타석에선 좌전안타를 뺏아 이번 ALDS 타율을 0.167(12타수 2안타)로 높였다.

한편 류현진(32)의 LA 다저스는 10일 오전 9시37분 안방 다저스타디움에서 워싱턴 내셔널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최종전을 치른다. 7일 3차전 선발을 맡았던 류현진도 불펜에 대기한다. 불펜등판 없이 다저스가 승리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4선승제)에 오르면 12일 1차전 선발등판이 유력하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최지만